

IIRI Online Series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

2024. 10. 22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권태환 |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미일 안보협력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안보를 위한 일관된 전략적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과 소다자 안보협력 등을 통한 우방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시대에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RBIO: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구축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통해 국가 번영을 가시적으로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엄중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중동지역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최근 헤즈볼라로 전선이 확장되면서 중동 확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군사력의 전략적 분산이 불가피하며, 한반도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불안정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은 핵사용 위협,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불법적인 쓰레기 풍선 도발 등 상시적 도발 태세로 전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동맹과 우방국들의 협력을 통해 위협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통합억제전략(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차원의 한미일 안보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다. 한미일 정상이 6.25 전쟁 이후 최초로 공동목표를 제시하고 협의체를 마련하였다. 한일 정상회담이 파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양국 정상의 결단이 있었다. 이후 금년 6월 2일 싱가포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군사관계의 장애물이었던 ‘초계기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또한, 15년 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지난 7월 28일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협력 각서’가 합의되었다. 새로운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알리는 쾌거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주요 내용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핵확장 억제’의 실질적 가동을 보장하고, 기습적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실시간 준비 태세 구축과 Action Plan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TSCF 협력 각서’는 이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도전·도발·위협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합참의장 회의, 안보 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년간의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둔 ‘프리덤 엣지(Freedom Edge)’ 등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적·체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요체이다. 그 중요성은 지난 7월 18일의 한미일 합참의장 공동 성명서에도 나타나 있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고, 대만해협에서 항해의 자유와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표 1> 2024 한미일 합참의장 공동성명 중 군사훈련 정례화 요지¹⁾

-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과 지난 6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미일 해군 간 다영역 다자간 군사훈련 ‘프리덤 엡지’를 한반도 동해에서 실시했으며,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대공방어, 대잠전, 수색 및 구조 훈련, 해상 차단 작전, 해상 공중 사이버 대응훈련 등이 포함됐다.
- 향후 한미일 3국 해군 간 다영역 다자간 군사훈련을 제도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쟁점과 과제

한미일 안보협력은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과 역내 안정은 물론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해 반드시 제도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다양한 도전이 예상된다. 한반도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유사시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 개입뿐 아니라 대만 유사시와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응 태세 확보를 위해 필리핀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해외거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략 3문서를 개정하고 방위비를 GDP 1%에서 2%로 증액하여 반격 능력 구축하는 한편 호주와 영국에 이어 필리핀과의 ‘상호접근협정(RAA: Reciprocal Access Agreement, 일본명: 원활화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노력 등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본다.

첫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제도화의 조기 정착 의지이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3국 정상들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지난 9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대신이 선출되었음은 고무적이다.²⁾ 이제 11월 미

1)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미일 합참의장 회담 공동 성명 (뉴스레터 제1673호, 2024년 8월 6일)

2) 이시바 신임 총리는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 기고문에서 "아시아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전쟁 억제 태세를 주장하였다.

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새로운 지도자들의 의지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제도화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동아시아 안보 역학관계의 변화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은 향후 군사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 북러 군사적 밀착,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중동전 확산 가운데 남중국해-대만해협-동중국해-한반도가 연계된 새로운 위기도 상정된다. 동아시아 역학관계 변화에 대응한 ‘통합억제전략’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셋째, 실시간 대응을 위한 실효적 군사대비태세 확립이다. 한반도 안보 여건은 복합적이며,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해지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정착되기까지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가 요구된다. 실시간 대응을 위한 실효적 군사대비태세는 무엇보다 우선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한미일 군사훈련의 정례화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실효적 대처를 위한 시발점이자 불가역적인 군사적 신구축을 위한 중심축이다.

넷째,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이면에는 지정학적 여건과 국내 정치적 환경에서 오는 미묘한 온도 차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고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며, 전략적 의사소통이 중요한 시점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충분한 설명은 물론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책제언 : KOJUS-Initiative의 전략적 운용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하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제도화하고 정례 훈련 등을 통해 ‘통합억제전략’ 차원의 퍼즐을 맞추어 나가는 노력과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의 중심축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KOJUS(Korea-Japan-US) Initiative를 제안한다.

<표 2> KOJUS Initiative(가칭) 개요

구분	Initiative	역할 분담(지원)	위협
한반도 영역	한미동맹 + 한국	일본 정부 16개 참전국, UN	북한 + 중,러(?)
동중국해 영역	미일동맹 + 일본	한국 정부	중국 불특정 위협
대만	미국(N/C, N/D)	한미일(KOJUS)	
남중국해 및 기타 영역	미필 · 태국 동맹 + ASEAN	한미일(KOJUS) QUAD, AUKUS	

KOJUS-Initiative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여, 한반도는 한미동맹과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동중국해는 미일동맹과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대만과 남중국해는 미국과 대만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용자산을 평시부터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대응 체제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즉 역내 지정학적 리스크를 시나리오별로 유형화함으로써 갈등관리와 전쟁 억제를 위한 실효적 통합작전태세를 확립하고, 지역별 위기가 상호 연계되어 역내 전반적으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별 온도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글로벌 안보환경과 역내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사회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이 그 기회이다.

저자 소개

권태환 회장(육사 38기, (예)육군준장)은 현재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으로서, 북극성안보연구소 소장과 국방부 및 합참, 육군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국방부 정책실 대외정책 총괄(2000~2004), 주일본 한국대사관 육군무관(2005~2008), 국방무관(2011~2015),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초빙교수(2017~2019) 등이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우크라이나전쟁 시사점과 한국의 국방혁신』 (2023, 공저), 『융합보안의 현상 진단과 대응 방안』 (2022, 공저) 그리고 『국가기밀보호법 제정 관련 해외입법 사례연구』 (2022, 공저) 등이 있다. (Email: thkwon38@naver.com)

